



# 해외건설

# BRIEF

## 아프리카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이재원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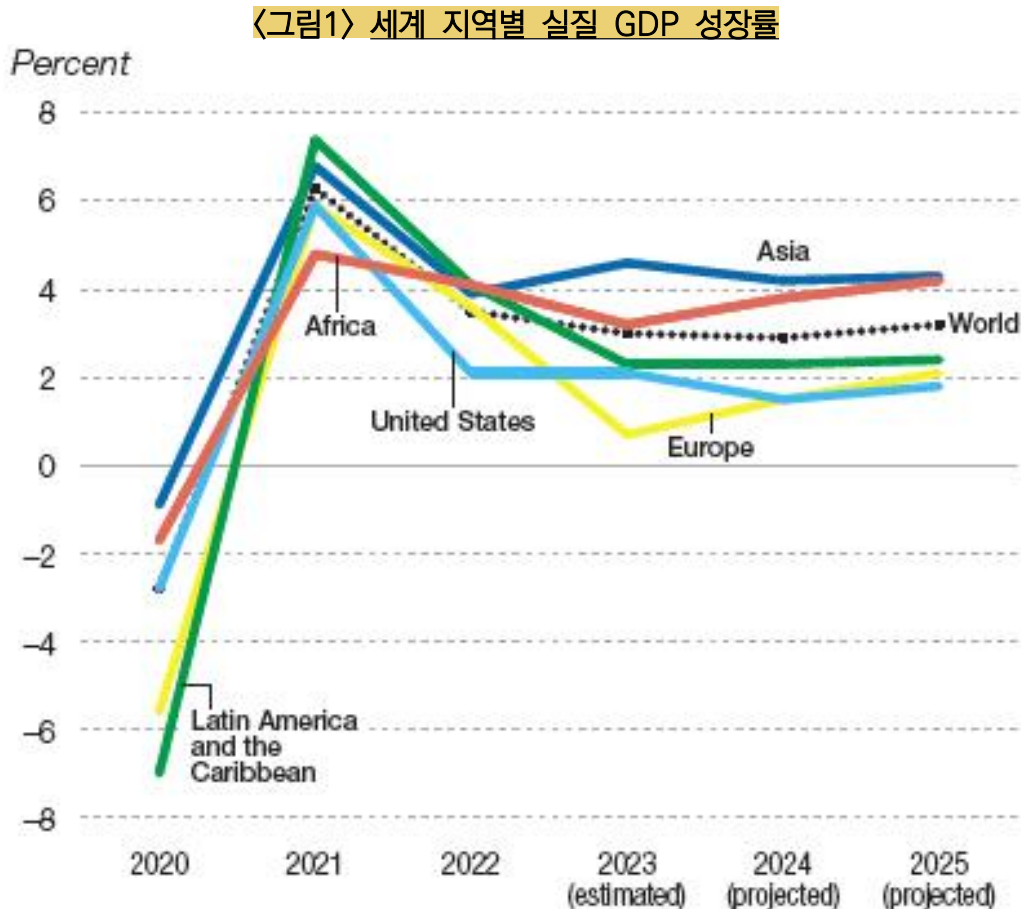
- I. 아프리카 대륙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II. 시사점 및 제언

|                               |    |
|-------------------------------|----|
| I. 아프리카 대륙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 3  |
| 가. 지역별 경제 성장률 동향 .....        | 3  |
| 나. 거시경제 지표 분석 및 전망 .....      | 7  |
| II. 시사점 및 제언 .....            | 11 |

## I 아프리카 대륙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가. 지역별 경제 성장률 동향

- 아프리카 경제는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성장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이하 AFDB)의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4.1%에서 2023년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AFDB statistics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 하락한 아프리카 대륙의 GDP 성장률과 달리, 에티오피아와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모리셔스, 르완다 등 15개 국가의 GDP는 2023년에 5% 이상 성장함. (표1 참조)

〈표1〉 아프리카 상위 15개 국가 GDP 성장률

| Region          | Country          | Covid-19<br>pandemic<br>shock | Strong<br>recovery<br>from<br>pandemic | Growth consolidation |      |
|-----------------|------------------|-------------------------------|--|----------------------|------|
|                 |                  | 2020                          | 2021                                   | 2022                 | 2023 |
| Central Africa  | Congo, Dem. Rep. | 1.7                           | 6.2                                    | 8.9                  | 6.2  |
| East Africa     | Djibouti         | 1.2                           | 4.8                                    | 3.7                  | 5.7  |
|                 | Ethiopia         | 6.1                           | 6.3                                    | 6.4                  | 7.1  |
|                 | Kenya            | -0.3                          | 7.6                                    | 4.8                  | 5.4  |
|                 | Rwanda           | -3.4                          | 10.9                                   | 8.2                  | 6.2  |
|                 | Tanzania         | 4.5                           | 4.8                                    | 4.7                  | 5.2  |
|                 | Uganda           | -1.2                          | 5.6                                    | 5.8                  | 5.1  |
| North Africa    | Libya            | -29.5                         | 28.3                                   | -3.7                 | 12.6 |
| Southern Africa | Mauritius        | -14.5                         | 3.4                                    | 8.9                  | 6.8  |
|                 | Mozambique       | -1.2                          | 2.4                                    | 4.4                  | 5.6  |
| West Africa     | Benin            | 3.8                           | 7.2                                    | 6.3                  | 6.2  |
|                 | Côte d'Ivoire    | 1.7                           | 7.4                                    | 6.7                  | 6.5  |
|                 | Gambia           | 0.6                           | 4.3                                    | 4.1                  | 5.6  |
|                 | Guinea           | 4.9                           | 4.4                                    | 4.3                  | 5.9  |
|                 | Togo             | 1.8                           | 6.0                                    | 5.8                  | 6.0  |

출처: African Development Bank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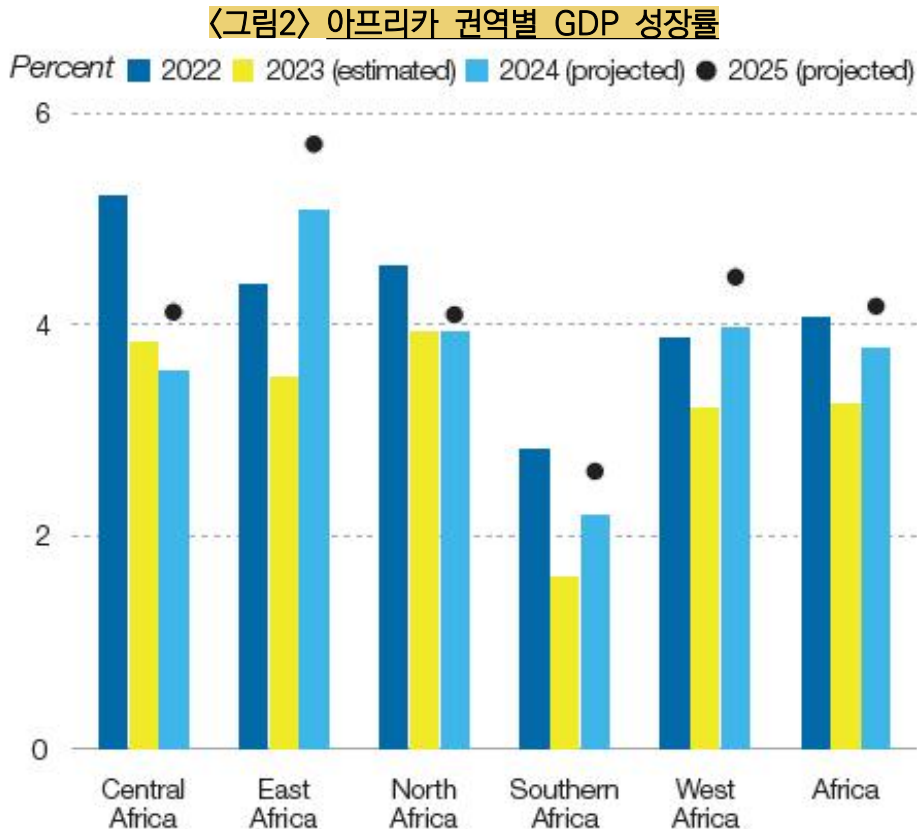
- 국내외 투자 금액의 증가, 관광업의 회복, 광업의 높은 실적, 경제 다각화 성공 등의 요인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AFDB의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2024년 예상 경제 성장률은 3.8%로 41개국이 성장하고 이 중 13개국은 2023년 대비 1%p 이상의 성장이 전망됨.

○ 이는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파른 성장 추세로 IMF가 발간한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2023.10)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20개국 중 11개국<sup>1)</sup>을 아프리카 국가로 선정함.

<sup>1)</sup> 11개국: 베냉,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에티오피아, 리비아,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 권역별 경제 성장률은 국가별 수출 시장의 상황 등 외부 요인과 원자재 의존도, 성장 부문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민간 소비 촉진 등의 내부 요인으로 인해 차이를 보임.



출처: African Development Bank statistics

- (중앙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이 2023년 3.8%에서 2024년 3.5%로 감소했다가 2025년 4.1%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적도 기니는 경제 불황의 지속으로 2024년 경제 성장률이 5.1%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동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개선을 위한 동아프리카 연합의 고도화와 전략적 공공 지출의 효과로 2023년 3.5%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2024년 5.1%, 2025년 5.7% 수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북아프리카) 전년 대비 보험세(3.9%)를 기록하다가 2025년에는 4.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여러 국가가 악천후(모로코 가뭄, 튀니지 가뭄, 리비아 홍수 등)로 고전함.
  - 팬데믹 이후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성장 동력과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남아프리카)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증가(2023년 1.6%, 2024년 2.2%, 2025년 2.6%)가 예상되지만, 남아프리카 지역의 거시경제 상황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
- 남아프리카 지역 최대 경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속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24년 1.1%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됨. 낙후된 사회적 인프라와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한때 국가의 성장 동력이었던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는(2023년 3.2%, 2024년 4%, 2025년 4.4%) 지역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4년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됨.
- 서아프리카 지역 최대 경제국인 나이지리아는 2024년 2.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시작한 나이지리아의 거시경제 정책 개혁(연료 보조금 합리화 및 환율 불균형 문제 해결)의 효과로 2025년 3.7%의 성장률이 전망됨.
  - 가나는 높은 부채율로 2024년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나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 부채 문제가 해결되어 2025년에는 4.5%의 성장률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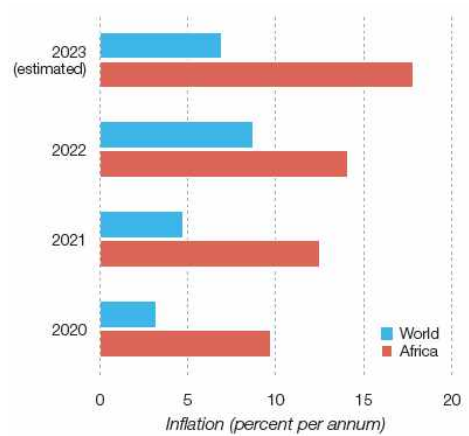
## 나. 거시경제 지표 분석 및 전망

□ (물가상승률) 아프리카 대륙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022년 14.1%에서 2023년 17.8%로 3.7%p 상승이 전망되며, 아프리카 대륙의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권역 및 국가별 물가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경제 긴축 등 외부 요인과 원자재 의존도, 통화가치 하락, 전쟁 등 내부 요인에 의하여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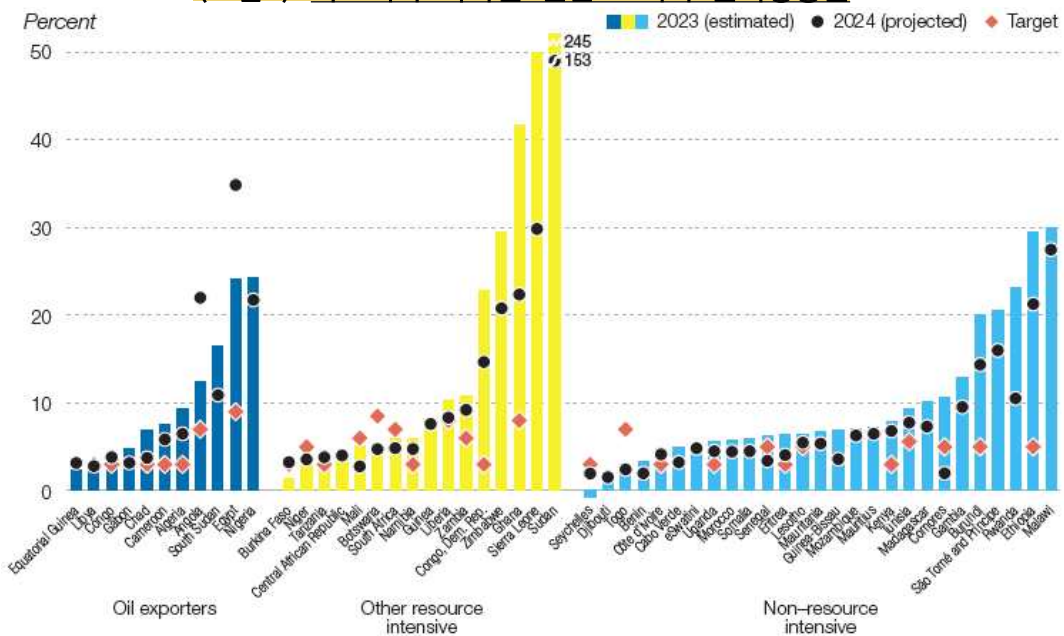
○ GDP 기준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는 2023년 각각 24.1%, 24.2%, 29.4%의 물가상승률이 전망됨.

〈그림3〉 전 세계 및 아프리카 연간 물가상승률



출처: African Development Bank statistics

〈그림4〉 아프리카 국가별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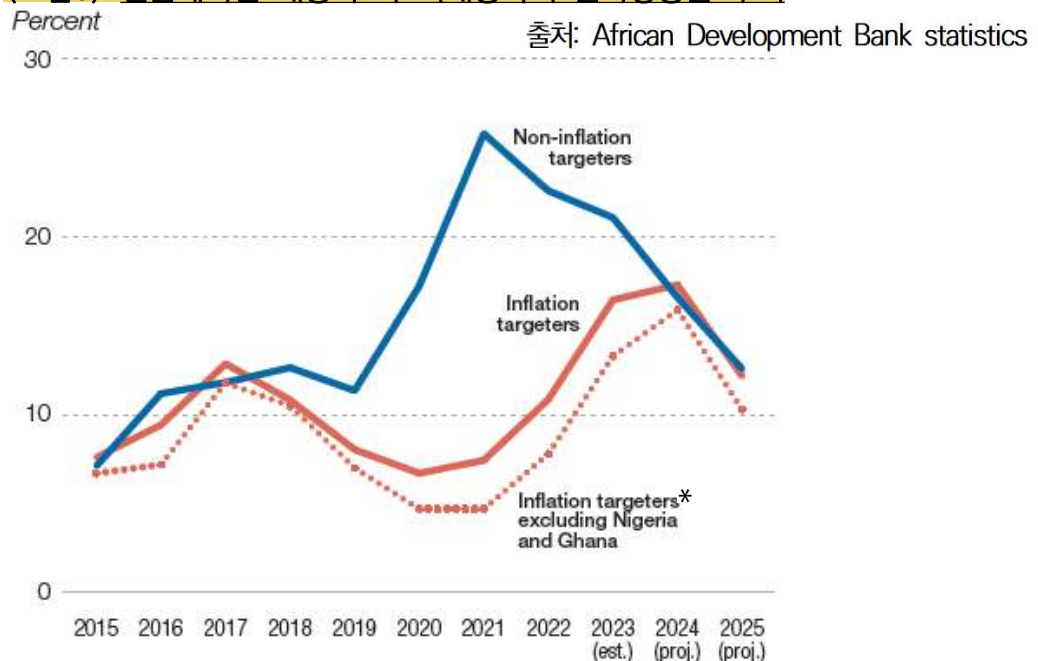


출처: African Development Bank statistics

-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30.6%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나, 이는 내전이 발생한 수단이 24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영향이 큼. 수단을 제외한 동아프리카 권역의 물가상승률은 13.8%로 대륙의 평균(17.8%)보다 낮은 수치가 전망됨.

- (서아프리카) 2023년 20.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에라리온과 가나가 각각 49.9%와 41.7%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남아프리카) 물가상승률의 하락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내 유일한 권역(2022년 10.7% → 2023년 8.5%)으로, 특히 앙골라는 2022년 물가상승의 원인이었던 유가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며 2022년 21.4%에서 2023년 12.4%로 물가상승률이 9%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북아프리카) 물가상승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권역으로, 2022년 8.2%에서 2023년 16.6%로 두 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됨. 이는 이집트의 물가상승률이 2022년 8.5%에서 2023년 24.1%로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 큼.
-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강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정책을 수립함.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정책을 수립한 국가(이하 인플레이션 대응국)와 명확한 인플레이션 대응 체계가 없는 국가(이하 인플레이션 미대응국)의 물가상승률은 명백한 차이가 보임.

〈그림5〉 인플레이션 대응국<sup>2)</sup>과 미대응국의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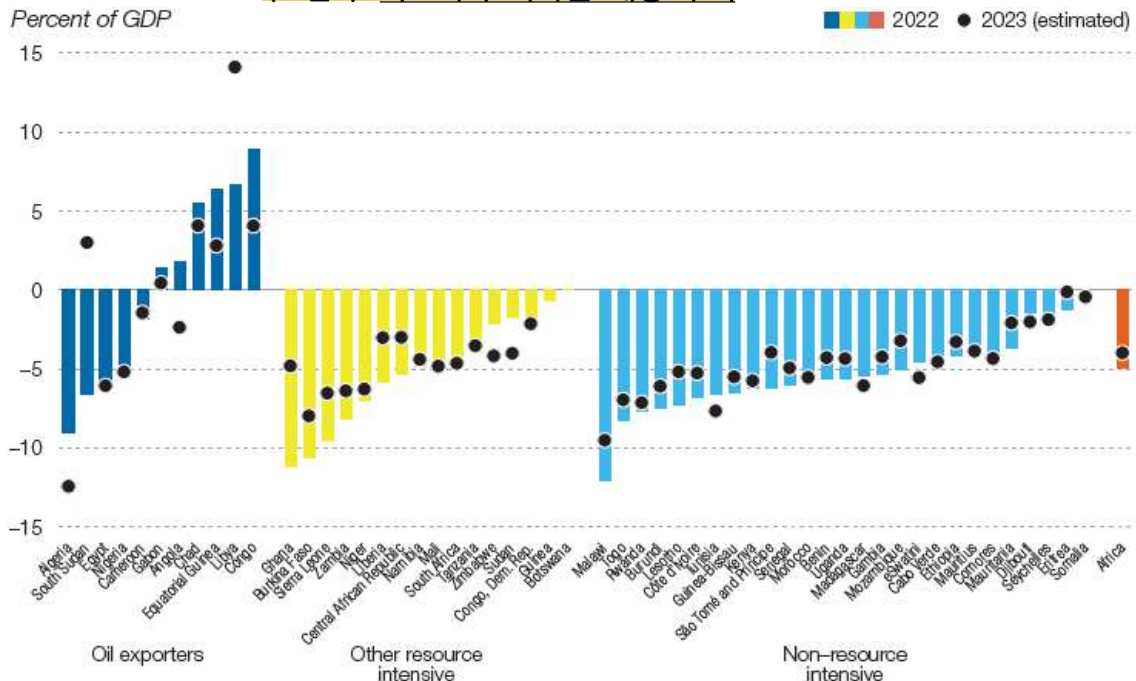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대응국이지만 예외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가나와 나이지리아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 대응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더 안정적인 수치가 전망됨.

2) 인플레이션 대응국: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 디부아르, 이집트, 적도 기니, 에스와티니,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 (GDP 대비 재정적자) 각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세입 실적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재정 정자는 2020년 GDP의 6.9% 수준에서 2021년 5.1%, 2022년 4.9%, 2023년 4.9%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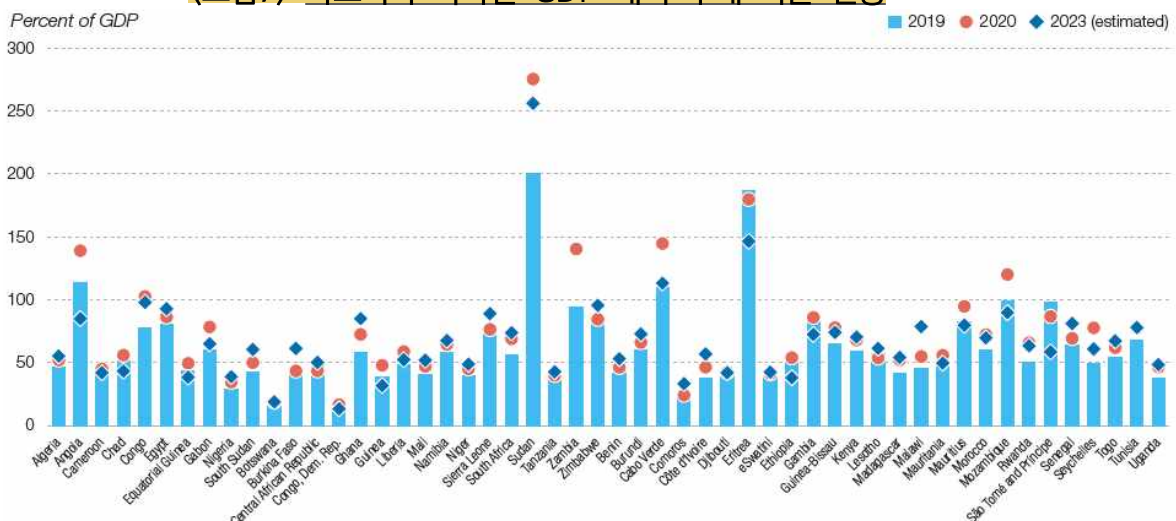
### 〈그림6〉 아프리카 국가별 재정 수지



출처: African Development Bank statistics

□ (공공 부채) 2021-23년 GDP 대비 평균 부채 비율 63.5%로, 2024년부터는 60%대를 유지하며 최근 10년의 상승 추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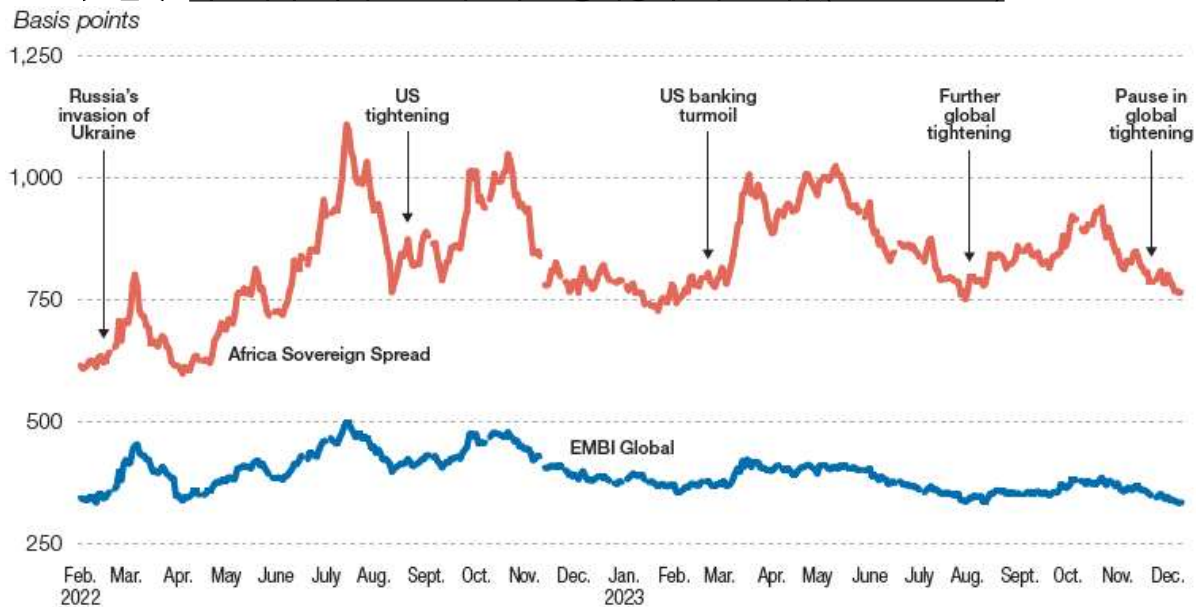
### 〈그림7〉 아프리카 국가별 GDP 대비 부채 비율 변동



출처: AFDB statistics based on the IMF's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글로벌 긴축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국채의 평균 스프레드는 신흥시장국 채권 지수의 3배 가까이 상승함. 그 결과, 아프리카 21개국(2023.11. 기준)이 채무 불이행 혹은 위험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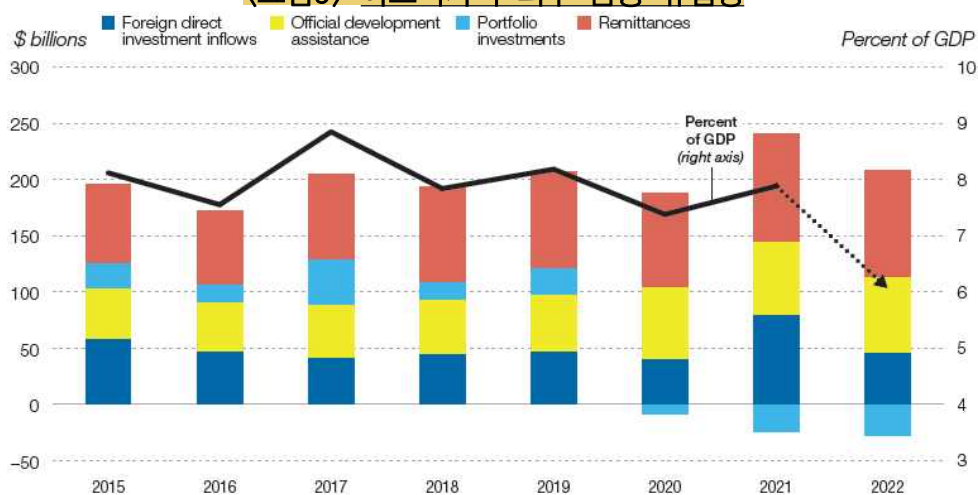
〈그림8〉 아프리카 국채 스프레드와 신흥시장국 채권 지수(EMBI Global)



출처: African Development Bank statistics based on Haver Analytics

- (금융 흐름) 아프리카 금융 유입량(FDI, ODA, 포트폴리오 투자, 송금)은 2022년, 전년대비 16.6% 감소하여 1,805억 달러(GDP의 6.1% 규모)를 기록했음. 이는 2021년, 전년대비 103% 상승한 FDI가 2022, 전년대비 43.5% 감소한 영향이 큼.

〈그림9〉 아프리카의 외부 금융 유입량



출처: African Development Bank statistics

- 경제 성장을 및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상황을 살펴본 결과, 대륙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나 회복 속도에서 국가별 양극화가 예상됨. 이에 따라, 각국 경제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부채 위험성) 최근 글로벌 금융 긴축 및 금리 상승,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채 비용이 상승하여 부채의 위험성이 증가함.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GDP 대비 각국의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므로 주의를 요함.
  - 높은 부채비율과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건설 비용 및 프로젝트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 요인임. 따라서 정부 정책 및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진입 국가를 선별해야 함.
- (정부 역량) 재정 건전화 정책 등의 정부 통화 정책의 유무로 인하여 국가별 물가상승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세수 대비 대외 채무 상환액의 중앙값은 2015-19년 6.8%에서 2020-22년 10.6%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투자 역량이 제한됨을 의미함. 따라서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력이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음.
- (사업 기회) AFDB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FDI 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프로젝트 수는 39% 증가하여 766개를 기록함. 또한, 2022년에 발표된 전 세계 15개의 그린필드 투자<sup>3)</sup> 메가 프로젝트(100억 달러 이상 규모) 중 40%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진됨.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각국 정부의 높은 개발사업 의지를 증명함.

3) 그린필드 투자(Green field Investment): 국외자본이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투자 방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투자를 받는 국가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매경이코노미, 2010.11)

## 1. 국외 자료

-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24). Africa's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Outlook. January 2024.
-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 2. 웹사이트\*

- \* (년도.월.일.)은 검색일을 뜻함
- 매경이코노미. (2024.04.12.). [新경제용어] 그린필드 투자(Green field Investment).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10&no=595565>